

People & Life

제56회 호남예술제 영예의 얼굴

“대회 2연패... 노력하는 무용수 될 것” “최고상만 4번... 많은 작품 연주하고파”

국무총리상 현대무용 풍암고 박효재

“지난해에도 최고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큰 상을 받아서 기뻐요. 올해는 고 3이라 부담이 많이 됐는데 입시 준비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 56회 호남예술제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박효재(풍암고 3년)양은 “앞으로 무용단에 들어가 많은 공연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양은 이번 경연에서 강렬한 동작이 인상적인 작품 ‘블랙 윈드’를 무대에 올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양이 무용에 입문한 건 초등학교 입학전인 7살 때. 처음에는 발레를 배웠지만 중학교 때 현대무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처음에는 무용을 전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무용을 도전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현대무용으로 바꿨죠. 발레는 형식적인 클래식 위주지만 현대무용은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 수 있어 춤출 때 훨씬 즐거워요.”

개성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제 자신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더 많아요.”

박양은 훌륭한 무용수 뿐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로도, 유능한 안무자로 꿈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무용을 할 때 눈빛이나 힘, 강렬함 같은 것은 아주 좋다는 칭찬을 받아요. 중간 중간 동작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박양은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단점들을 보완해 훌륭한 무용수로서의 꿈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문광부장관상 첼로 광주예술고 니유빈

제56회 호남예술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니유빈(광주예고 2학년)양은 호남예술제에서만 최고상을 4번 수상한 재원이다.

니양은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6학년때 첼로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것을 시작으로 문산중 재학 시절, 그리고 지난해에도 최고상을 수상, 월등한 실력을 입증했다.

“호남예술제에서 여러번 큰 상을 받아 기분이 좋는데, 올해는 장관상까지 받아 기쁨이 더욱 커요. 앞으로 열심히 연습해 훌륭한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니양이 첼로를 시작한 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당시 학교에서는 악기 하나씩을 의무적으로 배워야했고 니양은 작곡을 전공하고 현재 음악학원을 운영중인 아버지의 권유로 첼로를 접하게 됐다. 친구들이 많이 선택한 바이올린 보다는 좀 더 깊은 소리가 나는 첼로의 음색이 좋아 연습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음악을 전공할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광주시향 오디션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또 호남예술제에서 큰상을 받은 것도 많은 힘이 됐어요.”

이번 경연에서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한 니양은 앞으로 “할 쓰는법 등 기본기를 탄탄히 한 후 연습에 매진, 좋은 솔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향 단원에게 정기적인 지도를 받고 있는 니양은 “여성 첼리스트 자라린 뒤르타를 좋아한다”고 밝히고 “자주 연주하는 쇼스타코비치 곡을 비롯해 다양한 작품들을 연주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공원의 아생화

<48> 등골레

등골레는 30~60cm 정도로 자라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풀밭이나 숲에서 흔히 자란다.



등골레의 영명은 'Solomon's seal'으로 솔로몬이 사그러진 자리가 다했어 쓰던 육각형의 방패 모양을

‘다윗의 별’ 모형...생약 중 첫번째로 꼽혀

많은 이스라엘 국가에 그려져 있는 두개의 삼각형이 역교차된 모양으로 다윗의 별(the star of david)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 생약 중 첫 번째로 둔 등골레는 중국 한 무제와 선인이 즐겨먹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이다.

(박성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

최한철 교수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최한철 조선대(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재료학교실) 교수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시상하는 ‘제21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 교수는 2010년 한국표면공학학회에 게재된 ‘치과용 Ti-6Al-4V 합금 골 고정관 표면에 형성된 나노튜브의 부식거동’ 논문이 한국표면공학회의 추천과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건설철 전남도회 내일 임시총회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최상준·남화도건 대표이사·사진)는 29일 오전 10시30분 화순군 도곡면 도곡스파랜드 컨벤션홀에서 선출직 대표회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연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2010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안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박지성 석사과정 세미나 주제발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박지성(30)이 27일 명지대 용인 자연캠퍼스 체육학부에서 열린 석사과정 2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했다. 2010학년도 명지대 체육학부 석사과정에 등록해 3학기를 마친 박지성은 이날 ‘유소년 축구 부상 관리 현황’을 주제로 발표했다.

“광주시청 카페 커피맛 책임집니다”

시각장애 바리스타 문주현씨



“향긋한 커피향처럼 달콤한 휴식을 전해드리는 바리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27일 광주시청 1층에 문을 연 ‘이름’ 카페 바리스타 문주현(25)씨. 시각장애 6급인 문씨는 장애인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이 카페에서 꿈을 향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문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도 ‘남들보다 덜 보일 뿐 장애는 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묵묵히 방송엔지니어의 꿈을 키워나갔다. 그런데 중학교 입학 무렵 원인불명의 ‘모야모야병’을 앓게 돼 머리 수술을 몇 차례 해야 했다. 앞치킨 데 달린 격려로 아버지까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결국 문씨는 고등학교 진학의 꿈을

잡고 점점고시로 학위를 취득했다. 그리고 시각장애에도 불구하고 전국 공장을 오가며 일을 했다.

“공장생활에 지치면 친척이 운영 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했는데,

가슴속에 저전한 생각만은 지울 수 없었어요.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자 결심했죠. 그래서 시작 한 것이 바리스타예요.”

그는 지난 4월 고용지원센터의 도움으로 평소 생각만 해왔던 바리스타에 도전했다. 설레기만 했다. 한달 동안 동료와 함께 커피 만드는 법을 배우고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쉽지만은 않았다.

문씨는 “아직은 서툴지만 그래도 차츰 익숙해지고 있다”며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가장 맛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아메리카노를 대접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름’ 카페는 북구 장애인직업재활센터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능력 배양을 위해 커피 전문업체의 기술자원을 받아 운영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고흥 금산중 정선 학생

기초질서 UCC 전국 1위



고흥 금산중학교 정선(15) 양이 지난 4월 실시한 경찰청 주관 ‘제5회 기초질서 문화대전’ UCC부문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양이 응모한 ‘집에 가는 길, 글로 보는 기초질서’라는 제목의 UCC는 정양이 학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엘리베이터, 버스, 횡단보도 등에서 벌어지는 기초질서 위반 사례들을 60여 장의 그림으로 그려 스티플컷으로 이어붙인 동영상이다.

한편, 경찰은 정양이 만든 작품을 각종 간담회 및 기초질서 교육과 범죄 예방교실 등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주각중기자 gju@

농협 광주본부 가인회 보훈요양원서 봉사



농협 광주지역본부 여직원 모임인 ‘가인회(佳人會)’ 회원 20여명은 최근 광주보훈요양원을 방문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식사를 돕는 등 봉사활동을 했다.

영호남 나눔봉사단 익산서 봉사활동



조선대·원광대·영남대·동아대 등 4개 대학에서 각 5명씩 총 20명으로 구성된 ‘영호남 나눔봉사단’은 지난 24일부터 6박7일 동안 익산지역 노인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K-water 전남본부 담양 오디따기 봉사



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석천)는 최근 담양군 용면 용현리 도래수마을에서 오디따기 등 농촌봉사 활동을 실시했다.

생활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합죽

▲오순호·박삼숙씨 차남 차남(남도일보 편집국장 차남)군 성정화씨 차녀 권미영양(7월 2일(토) 오전 11시30분 광주시 서구 양동 예망의 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정형주(전주지법 진안등기소)·최금남씨 삼남 용(변호사)군 이순충(동남기업대표)·윤경선씨 장녀 다미(전북대 동물병원 수의사)양=7월 2일(토) 오후 1시 전주 월드컵컨벤션웨딩센터 드림홀.

동창·동문회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BA(회장이기상)정기총회=29일(수) 오후 6시 30분 전남대학교총동창회관(북구 중흥동 안보회관 옆) 6층 010-3609-6410.

향우회

▲재광 순창 향우회(회장 김진곤)=29일(수) 오후 7시 성상한 민어전어 식당(대인동) 062-227-2179.

알림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무료 상담=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시보호 상담. 국내 입양 상담. 미혼모 상담 및 시설 입소 안내 062-222-1095.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무료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자 관리 실시=직접인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 금연 필요성 및 방법 강연, 금연보조제 및 상담 062-363-2240.

▲비둘기 가정상담소 무료 상담 =인터넷 및 전화 상담. 방문 상담은 예약제. 062-652-1366, 062-434-1366 www.gene-korea.com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국번없이 136.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지방 검찰청 민원실 2층.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66만 전·의경 출신 모임=전·의경회 결성 019-277-0007.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아동상담소 국내입양 상담=“입양은 가슴으로 낳은 사랑입니다.” 아기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과 입양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시려는 분들께 아동의 입양을 도와드립니다.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사무소 062-227-8877.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미혼모(부)자 지원사업=긴급지원(출산·양육·응급상황발생시 아이병원비·생필품), 친자확인검사지원 및 상담,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 062-234-5792. (http://gjdongfc.familynet.or.kr/)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 6월 무료 법률상담=광주지방법원 민원실 062-239-1526.

▲(사)우리문화예술원 통통염서공모=폐선부지 현푸른길공원의 사진과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모(선정된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드림) 062-523-0474.

▲광주생명의 전화(실장 장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9시~오후 3시까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격려. 062-223-9191.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062-673-1366, 062-671-4050.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및 신고 전화 내용 비밀 보장 1577-1389.

▲광주해바라기 이동센터 무료 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및 심리 치료 등 윈스톱 서비스 062-232-1375, www.forchild.or.kr

▲중고컴퓨터 기증하실 분=광주·전남도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에게 중고 PC를 기증하실 개인, 단체, 기관 환영. (사)장애인먼저실천 광주·전남운동본부 062-511-0030.

▲무료자선봉사=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연말연시 위로행사 용으로 음향장비(앰프 등) 무상대여. 접수 후 가능여부 결정 010-7274-4321.

▲광주장애인인권센터 무료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인권문제연구소 062-369-0420 (1577-5364)

부음

▲조호덕씨 별세 이근영(광주일보 문화지국장)씨 모친상=발인 29일(수) 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010-2684-6091.

謹 故人의冥福을 빕니다 弔

故 김정애 님(여/82세)
子/子婦: 이영환/최순자 용인/김진현 용운/최희경 용구/이은성
女/婿: 이영숙/송현희 최지경/김규남 인순/김경진 영미/유영란
孫子: 이석재, 현태
• 발인: 6월 28일(토) 08시3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9

故 진순자 님(여/80세)
子/子婦: 정은백/서현숙, 윤성, 윤학/정희옥
女/婿: 정은일/문중순 김매/유영삼, 윤이/김명호
孫子: 이석재, 현태
• 발인: 6월 28일(토) 09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10

故 최기배 님(남/60세)
子: 최종희 女: 최유리
未亡人: 이재금
• 발인: 6월 29일(토) 08시00분
• 장지: 영락공원 • 연락처: 250-4405

故 이대순 님(여/86세)
子/子婦: 이동수/정근환/문석경/정수철/정영희/박기/배남숙
女/婿: 이정선/박래훈/정미/송정만
• 발인: 6월 29일(토) 09시00분
• 장지: 권북 고향 공동묘지(영락) • 연락처: 250-4407

李 金 浩 喪 禮 告 白
마음까지 편안함
문의 (062)227-4000
http://www.mykumho.com

그린장례식장 24시간대기 (062)250-4455